

제품구매시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분석

: 가정생활 양식유형, 안전의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허 경 옥(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총 2,000 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 (2007)의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안전의식과 가정생활양식 변수가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보다는 가격, 신선도 등 다른 요인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안전추구행동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둘째, 소비자 안전의식은 여성, 젊은 소비자, 가족 수가 3인 인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중간적 입장을 취한 소비자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체로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환경지향적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 일 수록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남성, 미혼자,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경우 안전성을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대체로 여성, 미혼,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경우 술의 소비가 적었으며, 여성, 고졸이하, 나이가 적은 경우, 가족·건강·여가 지향적인 경우 담배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졸, 고소득, 가족·건강지향적, 부정적 농산물수입개방 태도의 경우 수입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끝으로, 여성, 고졸 소비자, 여가·현재 지향적,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안전추구행동, 소비자 안전의식, 구매 기준

I. 서론

경제성장, 소득수준 증가 등으로 소비생활이 과거보다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나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량소비구조와 고도의 기술개발제품 그리고 수입제품이 급증하면서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열기과열로 인한 화재, 압력밥솥 폭발, 집단식중독 사건 등과 같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에서부터 수입식품, 가구, 세제, 완구, 육아용품 등으로부터 오작동, 사용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피해로 인해 소비자안전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 외에 안전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소비자안전을 구매선택의 중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안전치 못한 수입 공산품이나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007년 중국산 완구의 안전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국가의 중요한 소비자정책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안전 문제가 소비자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연구는 충분하게 진행되어 오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면에서 양적 측면에서 이 분야의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신문과 소비자전문잡지를 통한 시대적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파악연구(김성숙, 이기춘, 1995), 소비자의 안전의식 실태(양덕순, 이기춘, 2002), 소비자안전정보탐색행동 연구(김성숙, 이승신, 2000),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요구도 연구(김효정, 김미라, 2002), 소비자안전의식과 소비자안전추구행동 연구(강수현, 1981, 이지은, 이기춘, 1993, Brown, Crown, Marshall, 1987, Kramer, Penner, 1987),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조사 연구(계전자, 1987, 이지은, 이기춘, 1993)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안전 분야의 연구주제가 다양하지 못하며,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부족하고,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대해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의 안전제품구매 현황을 조사한다. 여기서 소비자가 구매한 조사대상 제품은 채소, 육류, 곡류, 과일, 자동차 5개와 술, 담배, 수입농산물 3개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회피성 제품이다. 둘째, 소비자의 환경의식 및 안전의식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정생활양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셋째, 5개 제품과 3개 회피성 제품의 안전제품구매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식, 소비자의 안전의식, 가정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단체, 기업,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 활용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경영 전략, 특히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안전의식 및 안전추구행동의 개념

소비자들의 의식이나 태도는 소비자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안전의식 역시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이나 안전추구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양덕순, 이기춘(2002)은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결함상품으로 인한 피해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소비자가 위험회피적 인지, 안전을 얼마나 중시하느냐가 상품 관련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숙, 이기춘(1998)은 소비자의식을 소비자문제나 소비자역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상, 감정, 이론, 견해라고 정의 내렸다. 한편, 이지은, 이기춘(1993)은 소비자안전에 대한 태도 개념을 사용하였다.

소비자안전의식 또는 소비자안전 관련 선행연구에서 소비자 안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차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 개념을 사용하거나(예: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Feldman, 1991; 김성숙, 이기춘, 1998 재인용),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 또는 안전태도 개념을 사용한 연구(예: 공업진흥청, 1989, 윤혜원, 1989, 최병선, 1989; Darden, 1994, Chipman et al., 1995, Grobe, Douthitt, 1995, Wessells, Anderson, 1995; 김성숙, 이기춘, 1998 재인용)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대해 김성숙, 이기춘(1998)은 소비자안전을 세 가지 유형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는데 안전추구행동, 안전대처행동, 안전전략이 그것으로 이들 개념은 비슷한 맥락으로 혼돈·사용되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들은 소비자안전추구행동을 안전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 행동의 보다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정의 내렸다.

2. 소비자안전추구행동 관련 요인

소비자안전추구행동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것 외에 소비자안전의식이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 같은 연구들의 결과는 상반되고 있다. 일부 연구(예: 강수현, 1981, 이지은, 이기춘, 1993)에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반면 다른 연구(예: Brown, Crown, Marshall, 1987, Kramer, Penner, 1987)에서는 안전의식이나 태도와 안전추구행동이 인과관계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성숙, 이기춘(1998)은 선행연구들이 각기 서로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조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안전추구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변수로는 소비자교육경험, 소비자전문지 구독경험, 위해경험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경험 변수로서 이들 변수는 대체로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계선자, 1987, 이지은, 이기춘, 1993).

지금까지 살펴본 변수 이외에 라이프스타일, 생활유형 등이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소비자의 환경추구행동관련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또는 생활양식 변수가 많이 고려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이 생활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안전을 중요시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 추가 지불 등 소비자의 선택적 행동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소비자의 삶 양식,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양식 특히 가정생활양식 변수를 안전추구행동의 관련 변인으로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소비자안전추구행동 관련 선행연구고찰

소비자안전제품구매 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소비자안전 문제가 심각한 제품을 조사하는 연구, 제품과 연관시켜 소비자 안전 정보 관련 연구, 소비자안전 인지도 관련 연구 등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제품구매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성숙, 이기춘(1995)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신문과 소비자전문잡지에 게재된 소비자안전문제 기사 또는 논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신문에서는 식품, 환경, 의약·위생 관련 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된 반면, 소비자전문잡지의 경우 자동차, 아동용품, 의류장신구 등 일상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시 되는 소비자안전문제 영역은 유해물질, 위생문제, 의약품위해, 안전사고, 환경안전, 감전누전화재, 식품첨가물, 주택결함, 자동차안전 순서로 나타났다. 소비자안전문제 영역별로는 신문의 경우 유해물질, 위생문제, 환경안전, 의약품위해 순서인 반면, 소비자전문잡지의 경우 위생문제, 유해물질, 감전누전화재, 기타 안전사고 순서로 밝혀져 소비자전문지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소비자안전정보나 안전문제가 주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 의사전달 및 교류의 장, 소비자의견전달 및 집단행동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안전문제나 안전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활용되는가 등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어쨌거나 이들의 연구를 통해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수집, 생산, 유통, 전달(이해) 등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 소비자참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김성숙, 이승신(2000)은 농산물, 가공식품, 가스기구, 전자제품, 가정용화학제품 5가지를 대상으로 질문지법과 표적집단 면접법(FGD)을 사용하여 상품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행동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안전문제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지만 대안모색에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안전정보의 이해보다는 안전정보의 획득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안전정보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안전성의 대리지표로서 제품보증, 상표, 광고, 가격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아직도 소비자안전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하고 또한 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함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 소비자의 안전정보요구도, 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 안전정보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매시 안전 고려 정도, 안전지향성 등 심리적 변수와 안전정보요구도, 안전 대리지표의 활용정도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전정보탐색행동

에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의 태도나 심리적 변수들의 중요함을 알려 준다. 이들의 연구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안전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최병선, 1990; 김성숙, 이기춘, 1995)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이 안전정보를 대중매체에서 주로 얻고 있다는 결과, 즉 소비자 안전정보의 전달은 아직까지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김효정, 김미라(2002)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요구도에 대한 분석을 방사전 조사식품과 환경호르몬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 소비자들의 이들 제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으나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정보요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식생활과 관련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양덕순, 이기춘(2002)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의식실태를 상품 관련 위해정보의 인지, 상품구입시 안전성 고려 정도, 상품표시 및 위험경고 표시에 대한 반응, 상품안전에의 지불용의, 상품관련 위해실태에 나타난 안전의식 5 가지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낮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소비자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비자전문지를 통한 위해정보 수집도 낮은 수준이며 국가의 위해정보수집 활동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유명회사 제품을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우선적 관심을 보이는 반면,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크지 않음을 밝혔다. 상품의 경고나 취급설명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가 적었고, 경고나 설명서에 대한 반응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상품에 대한 지불용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태균, 최관(1997)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가치 측정을 가상적 가치평가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한 결과 포도의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은 1kg 당 3,200원 또는 3,300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소비자안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소비자안전의식, 소비자안전정보탐색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주제가 다양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직접적인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제품들의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 제품 구매 행동에 대해 최근의 자료,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실시한「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 25개 지역으로 광역시 5개, 시 지역 11개, 군 지역 9개로서 인구, 성별, 연령별 모집단 특성을 비례층화한 조사이다. 조사방법은 설문서에 의한 타계식 개별면접방식을 취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총 2,000명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원(2007)에서는 이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에서 조사한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식과 행태 관련 트렌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소비생활합리화 및 소비자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인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추구 행동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제품별 안전제품구매현황, 환경의식 및 안전의식, 가정생활양식,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의 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을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지를 통해 안전추구행동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채소, 육류, 곡류, 과일, 자동차 구매에 있어 소비자가 안전성을 구매의 중요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를 조사하여 안전추구행동의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구매 회피적 제품인 술, 담배, 수입농산물의 구매 또는 소비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소비자안전의식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산물수입개방 태도, 가정생활 양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다. 셋째,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개 제품과 3개 회피성 제품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한, 8개 제품을 통합하여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가를 조사한다.

3. 조사도구 및 척도의 구성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을 분석하고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변수로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정생활양식 변수, 안전 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기혼여부, 소득, 학력, 취업여부, 연령 등이다. 가정생활양식 변수는 가족지향성, 여가지향성, 건강지향성, 미래지향성 4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4 가지 측면의 가정생활양식 유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가족지향성은 직장 못지않게 가정의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말이나 휴일은 주로 집 밖에서 보낸다(역코딩)의 2개 질문에 대한 5점 값의 합(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건강지향성은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다,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 먹는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나 보약을 먹는다 의 3개 질문으로 측정하였고, 여가지향성은 취미활동을 위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소득과 자유 시간에서 자유 시간을 늘리고 싶다 의 2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성은 앞으로 우리 집의 소비생활사정은 나아질 것이다, 향후 노후생활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 현재생활보다 미래생활을 더 중시한다 의 3개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값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2개 질문, 4점 척도에 대한 합산으로 측정하였다. 2개 질문은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각종 소비생활 상품·서비스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의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환경의식과 농산물수입에 대한 태도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환경의식은 2개 질문,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질문은 경제발전보다 환경이 우선이다, 환경문제 개선은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태도는 1개 질문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변수를 위한 질문은 채소, 육류, 곡류, 과일, 자동차

5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구매기준 9 가지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1 순위와 2 순위를 적도록 하는 것이다. 9 가지는 가격, 신선도, 품질, 영양, 안전성, 신뢰성, 포장 및 외관, 표시 내용, 원산지인데, 이중 안전성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답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추구행동을 1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는 방법, 즉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술, 담배, 수입 농산물 3개 제품의 경우 회피성 제품으로 구매 또는 소비수준으로 가변수 측정하였다. 술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하(전혀 안 마심 포함)로 마시는 경우 안전추구행동을 1로, 그 이상 더 자주 마시는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담배의 경우 피우지 않는 경우 1로, 수입농산물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구매 결정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경우 1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1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안전의식, 환경의식, 제품별 안전추구행동 변수 등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였다.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정생활양식, 기타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t검증 또는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 Test 를 실시하였다. 한편, 제품별로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 로지스틱(logistic) 분석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8개 제품의 총 합산 값, 즉 8개 제품에 대해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여성, 남성 각각 약 50%이며, 조사 대상자의 약 74%는 결혼한 소비자 나머지 26%는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조사대상자 중 약 10%,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약 31%, 201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33%,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2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약 65%는 고졸이하, 33%는 대졸, 1%는 대학원 졸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부를 조사한 결과 33%는 취업하지 않았으며, 67%는 취업한 소비자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의 경우 20대가 24%, 30대 27%, 40대 25%, 50대 16%, 60대 이상 약 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지향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6.74로, 여가 지향성을 10점 만점에 4.89로 나타나 여가 지향성보다 가족 지향성의 평균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개 질문, 15점 만점으로 측정된 건강 지향성은 평균 8.26 미래지향성은 6.63으로 건강지향성의 평균점수가 높다고 하겠다. 결국 대체로 가족 지향성과 건강지향성 수준이 미래지향성과 여가 지향성에 비해 평균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성 별	남 자	997(49.9)	기혼여부	미 혼	504(26.2)
	여 자	1003(50.2)		기 혼	1,421(73.8)
소 득	100만원 미만	192(9.6)	학 력	중졸이하	251(12.6)
	101~200만원	623(31.2)		고 졸	1,058(52.9)
	201~300만원	658(32.9)		대 졸	667(33.3)
	300~400만원	292(14.6)		대학원졸	24(1.2)
	400만원 이상	235(11.8)			
취업여부	비취업	665(33.3)	전문직 여부	비전문직	918(68.8)
	취업	1335(66.7)		전문직	417(31.2)
가구원 수 (M=3.51, S.D.=1.27)	1인	101(5.1)	연 령 (M=41.33, S.D.=12.69)	20~30세	485(24.3)
	2인	355(17.8)		31~40세	525(26.3)
	3인	454(22.7)		41~50세	490(24.5)
	4인	732(36.6)		51~60세	330(16.5)
	5인 이상	358(17.9)		60세 이상	170(8.5)
학령기별 자녀 존재 가구 수	유치원자녀존재	207(10.3)	가족지향 (M=6.74, S.D.=1.68)	매우소극(1~4)	193(9.7)
	초등생자녀존재	384(19.2)		소 극(5~6)	657(32.8)
	중고생자녀존재	374(18.7)		적 극(7~8)	847(42.4)
	대학생자녀존재	240(12.0)		매우적극(9~10)	303(15.1)
여가지향 (M=4.89, S.D.=1.75)	매우소극(1~3)	466(24.9)	건강지향 (M=8.26, S.D.=2.54)	매우소극(1~5)	481(24.1)
	소 극(4~5)	742(39.7)		소 극(6~8)	783(39.2)
	적 극(6~7)	511(27.3)		적 극(9~11)	559(28.0)
	매우적극(8~10)	152(8.1)		매우적극(12~15)	177(8.9)
미래지향 (M=6.63, S.D.=1.84)	매우소극(1~4)	258(12.9)	농산물 수입개방태도 (M=2.90, S.D.=1.21)	폐쇄적(1~2)	940(47.0)
	소 극(5~6)	721(36.1)		중 간(3)	271(13.6)
	적 극(7~8)	686(34.3)		개방적(4~5)	789(39.5)
	매우적극(9~15)	335(16.8)			
환경의식 (M=7.08, S.D.=1.70)	매우소극(1~4)	145(7.3)	안전의식 (M=5.34, S.D.=1.03)	매우소극(1~2)	2(0.1)
	소 극(5~6)	641(32.0)		소 극(3~4)	444(22.2)
	적 극(7~8)	839(42.0)		적 극(5~6)	1,335(68.4)
	매우적극(9~10)	375(18.7)		매우적극(7~8)	219(11.9)

점수가 높다고 하겠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태도는 평균 2.90으로 나타났고, 환경의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7.08, 안전의식은 8점 만점에 5.34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을 제 1 또는 제 2 구매결정의 우선 순위로 고려하는지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채소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즉 안전성을 구매결정시 1순위 또는 2순위로 고려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5% 만이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구매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기준은 신선도, 다음이 가격, 기타(신뢰성, 포장, 외관, 표시, 원산지), 품질 순서로 나타났다. 약 41%의 소비자가 채소를 구입할 때 신선도를 1순위 또는 2순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육류의 경우 소비자의 약 10%, 곡류 약 7%, 과일 6%, 자동차 17% 가 안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농산물 구매에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안전을 제 1 또는 제 2 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다음이 품질이나 맛, 가격 정도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중에서는 육류 구매시 다른 채소, 곡류, 과일 보다는

<표 2> 조사대상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채 소	안전	우선 201(5.1)	육 류	안전	우선 406(10.2)
	가격	우선 769(19.3)		가격	우선 664(16.7)
	신선도	우선 1638(41.2)		신선도	우선 1048(26.4)
	품질(맛)	우선 555(13.9)		품질(맛)	우선 689(17.3)
	영양	우선 250(6.3)		영양	우선 207(5.2)
	기타a	우선 565(14.2)		기타a	우선 963(24.2)
곡 류	안전	우선 257(6.5)	과 일	안전	우선 226(5.7)
	가격	우선 635(15.9)		가격	우선 497(12.5)
	신선도	우선 256(6.4)		신선도	우선 1576(39.6)
	품질(맛)	우선 743(18.7)		품질(맛)	우선 849(21.3)
	영양	우선 530(13.3)		영양	우선 211(5.3)
	기타a	우선 1559(39.2)		기타a	우선 620(15.6)
자동차	안전	우선 757(19.2)	술	매일 마심	27(1.4)
	가격	우선 684(17.4)		1주일 5~6	53(2.7)
	브랜드	우선 279(7.1)		1주일 3~4	199(10.0)
	색상/디자인	우선 403(10.2)		1주일 1~2	423(21.2)
	AS	우선 243(6.2)		한달 2~3	401(20.1)
	연비	우선 590(14.9)		한달 1이하	342(17.1)
	성능/기능	우선 650(16.5)		안 마신다	555(27.8)
	기타b	우선 333(8.4)			
담 배	피운다	512(25.6)	수입 농산물	가격 비싸도	394(19.7)
	안 피운다	1346(67.3)		우리 농산물	
	끊었다.	142(7.1)		비싸면	584(29.2)
총 8제품 안전구매	0 제품	73(3.7)		수입 농산물	777(38.9)
	1~2개 제품	952(47.6)		원산지 무관	
	3~4개 제품	881(44.0)		안전우선	245(12.3)
	5~8개 제품	94(4.7)		원산지 무관	
				가격우선	

참조: a 기타는 신뢰성, 포장/외관, 표시내용, 원산지 포함, b 기타는 회사의 평판, 할부조건, 잔존가치 포함.
 참조: 채소, 육류, 곡류, 과일, 자동차의 빈도수는 소비자가 구매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1순위, 2순위, 2개를 고르도록 한 후 빈도수를 합산.
 참조: 총 8제품안전구매의 경우 8개 제품별로 안전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한 후 8개 합산(술, 담배: 안 마신다/피운다, 수입농산물: 우리농산물 구매 또는 원산지 무관 안전 우선의 경우 1로 처리).

안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가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안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가 약 19%로 농산물 보다는 그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전 보다는 기타 요인, 즉 연비, 회사의 평판, 성능/기능, 할부조건, 잔존가치 등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회피성 제품인 술의 경우 약 45%, 담배의 경우 75%가 구매를 회피하고 있었고, 수입농산물의 경우 약 20%가 수입농산물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제품의 안전제품추구성향은 가변수로 측정하였으므로 총 8개 제품에서의 안전제품추구성향 값을 합한 값, 즉 8점 만점의 안전제품추구성향 변수의 경우 약 절반정도가 2점 이하로 나타났고 여기에 44%는 3점 또는 4점으로 나타났다. 5점 이상인 경우는 약 5%로 밝혀졌다.

2. 소비자의 환경의식과 안전의식의 차이 검증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태도, 가정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t 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의 안전의식의 경우 성별, 연령, 가족 수, 농산물 수입 개방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 수가 3인 인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중간 입장,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남성, 고연령자, 가족 수가 2인인 경우, 수입농산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 안전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안전의식의 경우 4 가지의 가정생활양식 유형 중 미래지향성에서만

<표 3> 소비자의 안전의식의 차이 검증

변 수	구 분	안전의식		
		평균	t/F값	D
성 별	남 성	5.28	-2.44**	
	여 성	5.39		
결혼여부	미 혼	5.38	.987	
	기 혼	5.32		
취업여부	비취업	5.30	-1.21	
	취 업	5.36		
교육수준	고졸 이하	5.34	-.046	
	대졸 이상	5.34		
연 령	20~30세	5.41	3.55***	b
	31~40세	5.42		b
	41~50세	5.30		b
	51~60세	5.28		ab
	61세 이상	5.12		a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5.42	1.74	
	101~200만원	5.35		
	201~300만원	5.38		
	301~500만원	5.21		
	501만원 이상	5.28		
가족 수	1인	5.34	2.78*	ab
	2인	5.23		a
	3인	5.45		b
	4인	5.29		ab
	5인 이상	5.39		ab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태도	부정적	5.35	2.47*	ab
	보 통	5.44		b
	긍정적	5.28		a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표 4> 가정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소비자 안전의식의 차이 검증

변 수	안전의식		
	평 균	t/F값	D
건강지향성	5.38	.57	
	5.34		
	5.30		
	5.34		
가족지향성	5.42	.53	
	5.33		
	5.32		
	5.35		
여가지향성	5.38	.78	
	5.31		
	5.28		
	5.34		
미래지향성	5.24	3.94**	a
	5.27		ab
	5.39		bc
	5.45		c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미래지향적일수록 대체로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건강지향성, 가족지향성, 여가지향성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소비자 집단들 간에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안전추구 행동 결정요인 분석

각 제품별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할 것인지의 여부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기 위해 로지스틱(Log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정생활유형, 안전의식, 환경의식, 수입농산물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5 가지의 제품에서 채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품구매에서 본 연구의 모델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소의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태도만이 채소구매시 안전성을 제 1 또는 제 2 순위 고려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일 수록 채소 구매시 안전을 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해 소비자가 1 단위 더 부정적일 수록 소비자가 채소구매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기준으로 삼을 확률이 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류구매의 경우 가정생활유형 변수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태도가 육류 구매시 안전성을 우선순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지향적이지 않을 경우, 여가 지향적이지 않을수록(일 지향적일 수록), 환경지향적 일수록 육류 구매시 안전성을 구매의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확률이 각각 17%, 8%, 1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태도의 경우 채소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일수록 안전성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을 알 수 있다.

<표 5> 소비자의 안전추구 행동 영향 요인 분석: 5개 제품

	채 소		육 류		곡 류		과 일		자동차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1)	-.11	.89	.06	1.06	-.27	.76	.11	1.11	-.22*	.79
대출여부	-.19	.82	.00	1.00	-.31	.72	-.13	.87	.02	1.02
결혼여부	-.06	.93	-.27	.76	.01	1.01	.39	1.48	-.11	.88
가계소득	-1.9	.98	.01	1.01	-.01	.98	-.11	.89	.06	.99
연 령	.00	1.00	-.00	.99	.01	1.01	-.00	.99	-.00	1.06
가족 수	.08	1.09	.05	.95	.00	1.00	-.02	.97	-.04	.96
가정생활스타일										
가족지향성	-.06	.94	-.17***	.83	-.21***	.80	-.07	.18	-.01*	.98
건강지향성	.03	1.03	-.03	.96	.03	.99	-.00	.99	-.04	.95
여가지향성	.03	1.03	-.08**	.92	.08*	1.09	.06	1.06	-.05*	.94
미래지향성	-.03	.96	.01	1.01	-.03	.96	.04	1.05	-.08***	.91
안전 관련 특성										
환경의식	-.00	.99	.03	1.03	-.02	.97	-.11*	.89	.01	1.01
안전의식	.07	1.07	.04	1.04	.02	1.02	.01	.98	.07	1.07
농산물수입개방태도	-.13*	.87	-.17***	.84	-.01	.98	-.23***	.79	.00	1.00
상 수	-2.41**		-1.3*		-1.25		-1.17		-1.15	
-2 Log Likelihood	1105.14		1481.64		1014.80		1111.16		2207.48	
Model Chi-Square	12.69	.08	76.39***	.25	28.42***	.28	38.23***	.31	43.12***	.85
Concordant rate	90.7		84.4		91.6		90.3		68.3	
N ¹⁾	1806		1806		1086		1806		1806	

*p<.05, **p<.01, ***p<.001

<표 6> 안전추구행동 영향 요인 분석: 소비회피적 제품

	술		담 배		수입농산물	
	B	Exp(B)	B	Exp(B)	B	Exp(B)
사회인구학적특성						
성별(여성=1)	1.63***	5.12	3.36***	28.83	.58***	1.79
대출여부	.03	1.03	-.24*	.78	.24*	1.28
결혼여부	-.30*	.73	.04	1.04	.13	1.14
가계소득	-.03	.96	-.00	.99	.16***	1.17
연 령	.01***	1.01	-.02***	.97	.01	1.01
가족 수	-.09*	.91	-.05	.35	.02	1.02
가정생활양식						
가족지향성	.21***	1.24	.20***	1.23	.11***	1.12
건강지향성	.01	1.01	.08***	.00	.04*	1.04
여가지향성	.01	1.01	.09*	.01	.04	1.04
미래지향성	-.01	.98	-.15***	.00	-.08**	.91
안전 관련 특성						
환경의식	.12***	1.13	.23***	.00	.04	1.04
안전의식	.02	1.02	-.07	.24	-.01	.98
농산물 수입개방 태도	.26***	1.30	.20***	.00	-.41***	.65
상 수	-4.63***		-1.86*		-3.15***	
-2 Log Likelihood	2111.98		1412.29		1635.40	
Model Chi-Square	364.30***	.01	650.10***	.02	140.55***	.04
Concordant rate	69.9		81.0		81.1	
N ¹⁾	1806		1806		1806	

*p<.05, **p<.01, ***p<.001

곡류의 경우 가족 지향적이지 않을수록, 과일의 경우 환경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구매시 안전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함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여러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남성일 수록, 미혼자 일 수록, 연령이 낮을 수록, 가족 수가 적을 수록, 가족 지향적이지 않을 수록, 여가 지향적이지 않을 수록(일 지향적), 미래 지향적이지 않을 수록(현재 지향적) 자동차 구매시 안전성을 구매의 중요기준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회피적 제품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서의 5개 제품에 비해 술과 담배, 수입농산물의 경우 여러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미혼,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을 수록,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수록 소비자의 술 소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성, 기혼자,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 수가 많은 경우, 환경의식이 낮은 경우,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술을 1달에 1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의 경우 여성, 고졸이하, 나이가 적은 경우, 가족지향적인 경우, 건강지향적인 경우, 여가지향적인 경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경우,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담배 소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농산물 구매를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 대졸인 경우,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지향적인 경우, 건강지향적인 경우, 미래지향성이 낮은 경우(현실 지향적인 경우),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수입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독립변수	안전추구행동	
	비표준화	표준화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1)	.76	.32***
대졸여부	-.04	-.01***
결혼여부	-.10	-.03
가계소득	.01	.01
연령	-.00	-.01
가족 수	-.02	-.02
가정생활유형		
건강지향성	.00	.01
가족지향성	.01	.02
여가지향성	.02	.04*
미래지향성		-.09***
안전 관련 특성		
환경의식	.06	.09***
안전의식	.01	.01
농산물수입개방 태도	.00	.00
상수	1.29	
F값	21.02***	
R ²	.14	
adjusted R ²	.13	

*P<.05, **P<.01, ***P<.001

참조: 안전추구행동의 경우 총 8개 제품 각각에 대해 안전을 중요기준으로 구매한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처리하여 총 8점 만점.

4. 가정생활유형 및 안전 관련변수가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전추구행동은 8가지 제품에 대한 안전제품구매여부의 합산 값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비자의 특성과 가정생활유형, 안전 관련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제품추구성향에 대한 본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14% 로 밝혀졌다.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대졸여부, 여가지향성, 미래지향성, 환경의식으로 나타났다. 기대와 달리 안전의식은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성, 고졸 소비자, 여가지향적인 소비자, 현재 지향적인 소비자,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제품구매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안전성을 구매의 중요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파악하였다. 또한, 소비자안전의식과 제품구매시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독립변수로서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산물 수입 개방 태도, 가정생활양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중 약 31%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안전성을 구매기준의 제1 또는 제2 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육류의 경우 16%, 과일 10%가 구매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자동차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보다는 가격, 신선도(?) 등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농약 및 유전자조합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불안 및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온 것에 비해 소비자들이 실제 농산물 구매시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입농산물의 경우 조사대상자 중 약 20%가 수입농산물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으로 농산물의 경우 실제 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품의 안전 관련 표시 및 안전제품 홍보, 농산물의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각종 소비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소비자 안전의식의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 수가 3인 인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중간적 입장(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지향성, 가족지향성, 여가지향성의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가 미래지향적일수록 안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매제품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육류의 경우, 환경지향적 일수록,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일수록 안전성을 구매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다만, 가족지향성과 여가지향성은 육류안전구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곡류의 경우 가족 지향적이지

않을수록, 과일의 경우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안전구매 추구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남성, 미혼자,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을수록, 가족 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여가 지향적이지 않을수록(일 지향적), 미래지향적이지 않을수록 안전성을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때, 가족지향성, 여가지향성, 미래지향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 미혼,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소비자의 술 구매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담배의 경우 여성, 고졸이하, 나이가 적은 경우, 가족지향적인 경우, 건강지향적인 경우, 여가지향적인 경우,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경우,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담배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입농산물의 경우 여성인 경우, 대졸인 경우,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지향적인 경우, 건강지향적인 경우, 미래지향성이 낮은 경우, 농산물수입개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수입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결과에서 가족지향성, 여가지향성, 미래지향성 등은 대체로 농산물 안전추구행동에서 부적영향, 소비회피적제품의 경우 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넷째, 8개 제품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품 구매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대졸여부, 여가지향성, 미래지향성, 환경의식으로 나타났고, 기대와 달리 안전의식은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여성, 고졸 소비자, 여가지향적인 소비자, 현재 지향적인 소비자,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제품구매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무엇보다도 농산물 구매에 있어 소비자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점, 즉 소비자들이 제품구매시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었고, 소비자안전의식이 제품구매시 안전추구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소비자단체, 언론, 정부 기관에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구매행동에 대한 지침, 홍보,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아야 한다. 둘째, 소비자안전의식은 소비자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소비자안전의식이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소비자안전에 대한 언론 및 사회적 분위기만 막연히 고조되었을 뿐 실제 구매단계에서 안전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 인식, 원인 분석,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남성,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전략이 필요하며, 이때 이 같은 내용에 안전구매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가 최신의 대표성 있는 전국규모의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추구행동을 연구한 점에서 가치가 있으나 향후 소비자들의 안전관련 행동에 대한 다양한 주제연구 및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현(1981). 안전행위를 위한 심리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강창경, 정순희, 허경옥(2003). 소비자 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
- 계선자(1981). 도시주부가 인지한 소비자문제와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권(1), 85-100.
- 공업진흥청(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 연구
- 김기옥, 허경옥, 정순희, 김혜선(2001). 소비자와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 김성숙, 이승신(2000). 상품 안전정보에 관한 소비자행동 연구, 소비자학연구, 11(3), 59-85.
- 김성숙, 이기춘(1995). 한국 대중매체에 나타난 소비자안전문제의 내용분석-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신문과 소비자전문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1), 19-32.
- 김성숙, 이기춘(1995).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3), 1-14.
- 김성천(2005). 서비스안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김성천(2005). 소비자안전과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김영신, 김인숙, 이희숙, 강성진, 유두련(2007).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 김영신, 이희숙, 유두련, 이은희, 김상옥(2002). 소비자정보관리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 김용희(1989). 소비자상품안전을 위한 규제분석틀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213-223.
- 김현주(2006). 소비자위해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김효정, 김미라(2002).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요구도에 관한 분석: 방사선조사 식품과 환경호르몬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2), 153-164.
- 김태균, 최관(1997).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가치측정-가상적 가치평가의 수정. 농업경제연구, 38(2), 1-17.
- 박성용(2006). PL 법상 표시결함의 표시광고법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양덕순, 이기춘(2002).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소비자학연구, 13(1), 1-24.
- 이기현(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 보고서.
- 이지은, 이기춘(1992). 서울시 주부소비자의 안전 추구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7.
- 최광준(1996). 소비자안전 및 부당광고:물품검사를 통한 안전적·정보제공적 소비자보호. 한독법학, 12, 163-177.
- 최병선(1989).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28(1), 179-210.
- 허경옥(2000). 정보사회와 소비자. 교문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7).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공청회. 공청회자료집.
- 한국소비생활연구원(2006). 식중독 사고 왜 빈번한가. 2006 소비자 식품안전 심포지엄.
-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1993). 소비자위해실태 및 안전의식
-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소비자위해정보백서.

-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공산품안전제도 개선 위해사례 연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용역보고서.
- Brown. S. A., Crown. E. M. & Marshall. S. P.(1987). Consumer Beliefs about a Attitude toward Intentions to Purchase Fire Resistant Products. *Advanced Council on Consumer Intersts*, 379-385.
- Chipman. H., Kendall. P., Auld. G., Slater. M. & Keefe. T.(1995). Consumer Reaction to a Risk/Benefit/Option Message about Agricultural Chemicals in the Food Suppl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0), 144-163
- Darden W.R. & Babin B. J. Griffin M. & Coulter R.(1994). Investigation of products Liability Attitudes and Options: A Consumer Perspective.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1):54-80
- Feldman. L. P.(1991).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and Prospects*(2nd ed.). St. Paul. Mn: West.
- Grobe D. & Douthitt R.(1995). Consumer Acceptance of Recombinant Bovine Growth Homan: Interplay Between Belief and Perceived Risk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 128-143.
- Kramer. C. S. & Penner. K. P.(1987). Food Safety Information and Regulation: Are these Substitutes or Compements? *Advanced on Consumer Interests*, 373-378.
- Wessells. C. R. & Anderson. J. G.(1995). Consumer Willingness to Pqy for Seafood Safety Assuranc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 85-107.